



전주대 LINC+사업단과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가 공동주관하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제1기 입학식이 전주대 리사이틀홀에서 열렸다.

‘리더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제1기 입학식

전주대 LINC+사업단(주송 단장)과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이인호 회장)가 공동주관하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제1기 입학식이 전주대 리사이틀홀에서 열렸다.

전주대는 지난 4월,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전주대 LINC+사업단은 (사)벤처기업협회 전

북지회와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을 발족하게 되었으며, 아카데미 과정의 일환으로 최고경영자과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첫 입학생으로 31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13명의 기관 대표, 총 44명이 입학했다.

이들은 앞으로 15주 동안 매주 화요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소양교육 및 명사특강, 창조경영교육, 디지털마케팅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10월 26일에는 유럽 22개국

한인무역상 대표를 아카데미로 초청하여 원우 회원의 유럽 진출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은 도내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간의 소통을 높이고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 및 교육도 병행된다. 이로써 전라북도내 산·관·학의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과 더불어 전라북도 발전을 이룰 스타 중소기업 육성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은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와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리더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라는 말처럼 전라북도 대표 리더들이 다함께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중소벤처분야와 지역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대학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9월 학부모교육 ‘풍성’

학부모 책모임 마중물샘 심화교육 등

전북도교육청이 9월에도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책모임 마중물샘 심화교육 등 3개 프로그램에 대해 도내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중부비전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학부모 책모임 마중물샘 심화교육’은 학부모 독서동아리 활동자 및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 받는다. 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강유원 박사가 강사로 나서 역사·역사학·역사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한다.

동화연극 자원활동가 교육은 오는 13일과 20일, 27일에 걸쳐 진행되며, 도내 학부모 8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안권순 동화연극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이동극의 이해 및 활동 놀이’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18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강의를 진행한다.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교육에는 교육전문컨설팅 기업인 잔디와 소풍 김인식 대표가 행복한 하루 만들기 를 주제로 학부모들과 만난다. 신청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http://parents.je.go.kr/main/main.jje>) 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 접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호원대학교가 5일 11시 본교 총장실에서 서울경제인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아시아의 중심대학으로 비약하는 의미 있고 힘찬 공간 될 것”

원광대, 프라임관 신축 개관

프라임사업 대형 유형에 선정된 바 있는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원광학원 신명국 이사장과 김도중 총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교내·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프라임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된 원광대 프라임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면적 12,116㎡ 규모로 구축했으며, 탄소융합공학과, 디지털콘텐츠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등 프라임 관련 6개 학과가 입주한 최신형 교육용 건물이다.

주요 공간으로는 1학과 1기업창업 정책과 연계해 재학생 창업 활성화

를 목적으로 마련된 창업공간 4개 실과 총 250석 규모의 컨퍼런스홀, PRIME 사업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PRIME 홍보 라운지 등이 있다.

특히 원광대는 프라임관 개관에 맞춰 ‘개관기념주간(PRIME WEEK)’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4차 산업혁명 체험캠프, 창의공학 작품전시 및 모의취업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관식에 참석한 인사들과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김도중 총장은 “여러 관계자분의 도움과 노력으로 신축한 프라임관은 원광대가 아시아의 중심대학으로 비약할 수 있을 의미 있고, 힘찬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며, “프라임관 신축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입주 학과들을 중심으로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광대학교가 5일 프라임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프라임사업단은 전북 지역 특색과 연계한 ‘농생명 & 스마트기계·소재 산업 인력양성’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과정 혁신, 진로 및 취·창업 지원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사회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과 함께 학생 중심의 대학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호원대, 서울경제인협회와 산학협력 협약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5일 11시 본교 총장실에서 서울경제인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호원대학교와 서울경제인협회(회장 임정희)는 산업체의 육성발전 및 학문적 이해증진에 관련된 연구개발과 교육 환경의 향상을 위해 상호지원 및 협력을 약속했으며,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2019학년도부터 서울경제인협회 회원사 직원 교육을 위한 법경찰학부 산업체위탁 학사학위 과정 개설을 합의했다.

양 기관은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교육장 무상제공, 본교 재학생의 산업체현장실습 및 졸업생의 취업 등에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 기관의 상호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강희성 총장은 “산업체위탁 교육과정에 다양한 방향으로 서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인협회는 2008년 설립된 단체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공헌, 일자리 창출,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3천여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김재훈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